

# 영광굴비특구 지정 기한 2023년까지 연장

### 중기부 승인... 브랜드 상승 지역 활성화 탄력

###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국무회의 통과만 남아

‘영광굴비산업특구’ 지정 기한이 연장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됐다.

영광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영광굴비산업특구’ 기한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굴비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09년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받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228억원을 투입해 굴비산업관련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시설개선과 품질 향상을 추진해왔다.

연평균 기온이 10.5℃인 굴비 주산지인 영광 법성포는 적당한 일조량과 해풍으로 인해 굴비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영광굴비 생산품질 혁신·고부가가치화사업’을 비롯해, ‘영광굴비 인력지원 인프라구축사업’, ‘영광굴비 브

랜드개발·마케팅혁신사업’, ‘영광굴비 홍보·관광 혁신사업’ 등 4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관련 용역과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특구 기간 연장에 이어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이 완료되면 영광굴비 브랜드 강화와 판매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조항 적용에 따라 관련 산업의 지리적 표시등록과 육외광고물 설치, 상표등록 등의 업무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인 굴비 특구지정이 연장돼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승순 기자



해상가두리 양식을 통해 기른 참조기 136상자(3,200만원)가 영광군수협 위판장을 통해 출하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담양, 방역·비상진료체계 구축 설 당일 관내 주요 관광지 휴관

담양군이 설 연휴를 맞아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교통, 물가안정, 재난·재해, 보건진료, 주민불편해소, 관광안내, 가족질병, 공직기강확립 등 10개의 대책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설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점이 되지 않도록 방역과 더불어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선별진료소와 더불어 비상진료 상황실과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과 물가 안정대책에도 집중한다.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차량 소통상황과 안전운행을 관리하고 물가안정대책반에서는 성수품 수급과 가격안정,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 대책을 추진하고 군립묘원 종합대책반 운영, 상하수도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 연휴 기간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 ‘장성호 수변길마켓’ 운영자 모집

### 지역 거주 농업인·단체

장성군이 2022년도 ‘장성호 수변길마켓’ 개장을 앞두고 운영자를 모집한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장성군이 운영 중인 대표적인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총 9개동이 운영되고 있다. 장성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총매출액 3억 1,900만원(전년대비 276%)을 기록했다.

군은 올해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마다 수변길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며, 10개월을 운영할 일반부스와 농산물의 특성상 장기 운영이 어려운 농업인이나 단체를 위한 계절부스(2개월)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고일 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농업인 및 단체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수변길마켓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군이 올해 ‘장성호 수변길 마트’ 개장을 앞두고 운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수변길 마켓 상인들이 엄지를 들고 환호하는 장면.

/장성군 제공

## 나주, 계약심사 제도로 13억7천만원 절감

### 작년 공사 등 총 348건

나주시가 합리적인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13억7,000만원의 혈세를 절감했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계약심사는 시본청과 직속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심사를 통해 계약 원가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원가 심사는 1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총 348건(768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매년 개정되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사업 목적,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공법 적용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감액 위주 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 검토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정 사업비 책정에 노력했다.

이 같은 심사를 통해 공사 10억8,000만원, 용역 2억1,000만원, 일반물품 8,000만원 등 총 13억7,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나주=이재순 기자

## 화순농업인대학, 신입생 내달 16일까지 신청

화순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제15회 화순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15기 농업인대학에서는 신소득작물과, 토마토와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과정당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2월 16일까지다.

희망자는 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 17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화순군 거주자로 과정별 교육 작목을 재배하거나 관련 농가를 우선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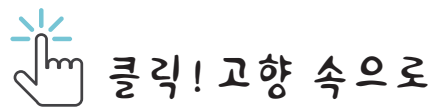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과정별 재배기술, 마케팅, 유통, 농업인이 알

아야할 교양과목 등 20여 회, 100시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화순군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공지된 양식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dudwo2121@korea.kr)로 하면 된다.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업인대학은 14기에 걸쳐 29개 과정을 운영, 졸업생 1,057명을 배출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 장흥 한돈협회, 한돈 2,500인분 전달

(사)대한한돈협회 장흥군지부는 설 명절과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복지시설 등과 나누기 위해 돼지고기 500kg(2,500인분, 450만원 상당)을 장흥군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두석 장흥 한돈지부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

다”며 “설 명절을 맞아 장흥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 한돈협회는 2014년부터 매년 돼지고기를 기부하며 꾸준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 받은 돼지고기는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6개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장흥=이옥현 기자



### 담양 수북교회, 면사무소에 생필품 기탁

담양군 수북면 소재 수북교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최근 수북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26일 전했다.

기탁된 물품은 라면 및 참치세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4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세영 목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

운 지역 주민들과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보겠다”고 전했다.

김태중 수북면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몸과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는 이런 때 어려운 이웃들의 위안이 될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나주 산포면 이장단, 온정 나눔 행사

나주시 산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 주민을 위한 온정 나눔에 동참했다.

산포면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단에서 이웃돕기 성금 120만원과 4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강봉원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할 수 없어 아쉬

웠지만 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간 모아왔던 회비, 수당을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윤택 이장단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이웃들의 마음을 녹이는 성금을 각 마을 이장들과 함께 모았다”며 “소소하지만 어려운 이웃의 훈훈한 명절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